

원저

## 중풍 후 운동 장애에 대한 『醫部集成』의 침구치료 고찰

정동원, 민인규, 문상관, 박성욱, 정우상, 박정미, 고창남, 조기호, 배형섭, 김영석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2내과학교실

### A literatural study on the acupuncture and moxibustion for hemiparesis of stroke in *Euibujipsung*

Jeong Dong-won, Min In-kyu, Moon Sang-kwan, Park Seong-uk, Jung Woo-sang, Park Jung-mee, Ko Chang-nam, Cho Ki-ho, Bae Hyung-sup, and Kim Young-suk

Department of Cardiovascular and Neurologic Diseases(Stroke Center)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Seoul, Korea

**Objectives and methods:** The *Euibujipsung* is the one of the huge-scale encyclopedias about Oriental Medicine. To investigate the most frequently used acupoints for hemiparesis after stroke, we used *Euibujipsung* CR-ROM database with several key words concerned with motor weakness (半身不遂 不遂 不隨 癱瘓 中臟 中腑 風痺, etc.).

**Results:** In the result, we found five popular acupoints (GV20, LI11, LI15, ST36 and GB39), and four meridians (Stomach, Gall bladder, Large intestine and Small intestine). We also found that the Yang meridians were cited more frequently than the Yin.

**Conclusion:** Therefore we think that these findings can give further ideas to clinical practice and research fields for stroke rehabilitation in Oriental medicine.

**Key Words:** Acupuncture, Moxibustion, Stroke, Hemiparesis

## 서론

중풍은 <黃帝內經>에서 그 기원이 언급된 이래 한의학 내에서 중요한 질환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현재도 성인 3대 사망원인의 하나로서 그 중요성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일찍이 중풍에 한의학적인 치료 방법으로 다양한 접근이 이루어졌으며, 약물치료, 재활물리치료와 함께 침구치료를 대한 인식도 더욱 커져가고 있다.

아울러 현대에 이르러 동물 실험 및 임상 시험 등 침구 치료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수행됨에 따라서, 실험의 내용을 뒷받침하고 해석할 수 있는 문헌 고찰 자료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한의학에서의 중풍의 침구치료법을 확립하기 위하여 그간 고전을 통한 다양한 문헌 고찰이 이루어져왔으며, 특히 최<sup>1)</sup>등이 1978년에 중풍의 침구치료를 대한 문헌적 고찰을 보고한 이래 다수의 보고들이 한의학 고전의 고찰을 통한 침구 치료법을 확립하고자 하였다<sup>2-7)</sup>.

그러나 문헌 고찰은 개별 서적의 검색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 힘든 작업일뿐더러, 고전의 다양한 표현에 대하여 어떻게 해석하고 고찰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따라 기존 논문들이 대체로 객관

교신저자: 문상관  
주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1번지 경희의료원 한방병원 2내과학교실  
전화: 02-958-9289 팩스: 02-958-9132  
E-mail: skmoon@khu.ac.kr

적이고 재현성을 가지는 체계적 연구 방법론 측면에서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최근 한의학 원전 현대화작업을 통하여 많은 고전들이 전산화되었고, 이런 작업 중의 하나로 淸 황실의 지원 아래 방대한 규모의 편찬사업을 거쳐 이룩되었던 <欽定古今圖書集成>의 일부인 <古今圖書集成·醫部>를 2002년 한의학연구원에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CD-ROM으로 발행하였다. 이와 같은 전산화작업을 통하여 과거보다 많은 분량의 고전에 대해서도 검색이 용이해지게 되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圖書集成 CD-ROM 검색 및 재현성있는 Key word 선정기준 설정을 통하여 중풍 후 운동장애에 대한 침구 치료의 문헌적 고찰을 수행하여 다소의 지견을 얻었기에 보고하고자 한다.

## 연구대상 및 방법

### 1. 조사 대상

조사대상은 2002년 전국한의과대학 졸업생들이 입력하고 한의학연구원에서 발행한 <古今圖書集成·醫部> 데이터베이스 시디롬을 대상으로 하였다.

### 2. 조사 방법

전산화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기초로 하여 문헌 조사를 하였다는 보고나 문헌 조사 시의 연구 방법론에 관하여 서술한 보고를 통한 전형을 얻을 수 없었기에 새로운 문헌 조사 프로토콜을 작성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키워드를 이용한 문헌 검색을 시행하였다.

키워드 선정에 앞서, 현대한의학에서 정의한 ‘中風’보다 고전에서 쓰인 ‘中風’이 좀 더 광의적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어 일단 중풍의 의미를 뇌혈관 질환의 범주로 한정시켰으며, 이에 관한 운동 증상을 검색할 수 있는 키워드를 선정하였다.

키워드는 한의과대학의 심계내과학교재로 사용되는 심계내과학의 중풍편 중에서 중풍의 개요, 역대제가설, 분류 부분에 기재된 내용 중 중풍의 정의, 병태

생리, 증상 등을 지칭하는 단어를 찾았다. 이 중 운동장애에 관련된 모든 단어를 선정하였다.

이 키워드 중에는 그 키워드의 단독 출현만으로도 중풍에 관한 서술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단어도 있는가 하면, 해당 키워드의 의미가 다의적으로 쓰여 중풍의 증상일 수도 있으나 혹은 소아마비, 뇌성마비, 각종 근골격계 질환, 신경학적 질환 등 중풍과 감별해야할 질환의 의미일 수도 있는 단어도 있었다. 따라서 선정된 모든 키워드로 검색을 실시한 후 해당 문장들을 sorting하여 해당 단어의 경중, 의미의 중의성, 타 질환과의 감별 가능성 등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토대로 하여 단어들을 다음과 같이 4종류의 grade로 구분하였다(Table 1).

우선 단독 출현만으로 중풍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키워드는 Grade 1 group으로 묶었으며, 다의적인 표현이 섞여 검색된 문장들을 재분류한 키워드는 Grade 2, 3 group으로 묶었다. 이 중 Grade 2 group은 단독 출현 시에는 인정하지만, 중풍과 관련없는 단어와 같이 쓰일 경우 배제되는 키워드들이고, Grade 3은 단독 출현 시에 인정하지 않고 반드시 같이 기재된 단어로 판단하는 키워드들의 집합이다. 재분류 시에는 문장 내의 다른 키워드와의 관련성을 대조하여 선정하였다. 예를 들어 사지불거의 경우, ‘足陽明大巨：偏枯，四肢不舉.’와 같이 해당 문장에 다른 검색어나 구안와 사나 연하장애 등 뇌혈관질환임을 알 수 있는 언급이 같이 기술되어 있으면 중풍의 증상으로 유추하여 선정에 포함하고, ‘癱，背脊振寒，項痛引肘腋，腰痛引少腹，四肢不舉，少海主之.’와 같이 학질이나 기타 열병, 간질에 관한 언급이 같이 기술되어 있으면 제외하는 방식을 따랐다. Grade 4 group은 서적을 통해 키워드로 선정되었으나, 치료결과 관련된 언급이 없어서 실제 검색된 데이터가 없는 단어들이다. 키워드 선정 시, 不遂, 不隨 혹은 癱痺, 麻痺와 같이 동일 의미의 다른 표현은 모두 포함하였다.

실제 검색을 실시함에 있어서 데이터베이스 CD 자체의 검색 기능이 충분치 않아 해당 키워드가 CD전체에서 완벽하게 문장을 검색하지 못한다는 점을 발견하여, 이를 보완하기 위해 CD의 문별 색인 목록에서 ‘針灸篇’ 혹은 ‘鍼灸篇’으로 분류된 모든 부분을 문

서프로그램 ‘한글 2005’로 옮겨 ‘한글 2005’의 검색 기능을 이용하여 재검색을 시행하였다.

**Table 1.** Categorized Keyword group used for text search.

Grade 1	半身不遂 不遂 不隨 癱瘓 中臟 中腑 風痹
Grade 2	偏枯 偏風 偏身 中風 癱痺 麻痺 卒中
Grade 3	四肢不舉 不仁 麻木 癱木
Grade 4	大厥 薄厥 半偏 風痺 痺風 中經 中絡 風癱 風懿 僵仆

## 결과

검색 결과 31개의 경혈이 총 77회 인용되었다. 이 중 5회 이상 다빈도로 언급된 경혈로는 百會 8회, 曲池 6회, 肩髃, 足三里, 懸鍾이 각 5회로 나타났다. 검색된 경혈을 경락별로 분류한 결과 足少陽膽經과 足陽明胃經이 각각 7개(22.5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手陽明大腸經, 手太陽小腸經이 각 3회로 나타났다. 소속 경혈이 10회 이상 다빈도로 언급된 경락으로는 足少陽膽經이 18회(23.38%)로 가장 많았고, 足陽明胃經 13회, 手陽明大腸經 12회로 나타났다. 검색 경혈을 陽經과 陰經으로 나누는 결과 陽經이 22개 경혈로서

70.96%, 인용회수로는 총 53회로 68.83%를 차지하였고 陰經이 인용회수 10회(13%)를 나타내었다(Table 2).

## 고찰

한의학에서 문헌적 고찰은 다른 실험 논문 및 임상 논문 작성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연구로서, 이를 통해 한의학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연구의 새로운 동기 및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다. 특히 중풍의 침구 치료에 관한 문헌논문으로 최<sup>1)</sup> 등이 1978년에 발표한 이래, 많은 보고들이 있는데 문헌 고찰을 통해 경혈을 분석하는 논문이 다수를 이루는 가운데, 이미 발표된 연구 및 타 논문들을 재분석한 논문들도 있었다<sup>2-7)</sup>.

문헌적 고찰은 조사대상이 되는 문헌과 조사 방법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지금까지의 보고들이 어느 정도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는 있지만 조사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은 논문이 많고, 또한 인용 서적이 방대하지만, 수작업으로 분류하였는지, 검색어를 이용하여 검색을 하였는지에 대한 언급이

**Table 2.** Meridians and acupoints for hemiparesis of stroke in *Euibujipsung*

Name of meridian	Total numbers of cited acupoints	Total numbers of citation	Name of Acupoints (numbers of citation)
Lung	2	4	LU7(1) LU11(3)
Large Intestine	3	12	LI4(1) LI11(6) LI15(5)
Stomach	7	13	ST1(1) ST4(1) ST6(1) ST9(1) ST27(3) ST36(5) ST42(1) ST9(1)
Spleen	0	0	
Heart	0	0	
Small Intestine	3	6	SI4(2) SI9(2) SI16(2)
Bladder	2	4	BL59(2) BL64(2)
Kidney	1	2	KI6(2)
Pericardium	2	2	PC5(1) PC7(1)
Triple Energizer	0	0	
Gall Bladder	7	18	GB2(1) GB20(3) GB21(1) GB30(3) GB31(4) GB34(1) GB39(5)
Liver	1	2	LR4(2)
Governor	2	10	GV14(2) GV20(8)
Conception	1	4	CV22(4)
Total	31	77	
Yang Meridian	22	53	
Yin Meridian	6	10	
Extra Meridian	3	14	

없이 객관성과 재현성 측면에서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가장 최근에 간행되었고 또한 원본의 내용이 방대한 <古今圖書集成醫部>의 CD-ROM 데이터를 통한 체계적인 분석을 시행하여 보다 정확한 문헌 고찰 연구의 방법론을 제시하면서 기존 연구의 내용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한 <欽定古今圖書集成>은 청나라 강희제 때 陳夢雷가 시작한 것을 옹정제 때 蔣延錫이 이어받아 1725년에 완성한 동양 최대의 백과사전이며, 이 중 <古今圖書集成醫部>는 <醫部全錄>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는 정조 1년인 1777년 2월에 중국에서 들여와 규장각에 보관하고 사용하게 하였다. 이 책은 청 황실의 지원을 받아 간행된 동양 최고의 백과사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의학 분야에 있어서도 18세기까지의 동양 의학의 성과를 집대성했다는 의의가 있다. 그러나 한자로 이루어진 동양의 백과사전식의 서적은 고전문헌의 특성상 현대에 사용 및 검색이 제한되는 단점이 있었다. 이에 2002년 한국한의학연구원과 11개 한의과대학생의 작업으로 CD-ROM으로 데이터베이스화되어 한층 활용이 용이해졌다<sup>8)</sup>. 이로써 <醫部全錄>은 해당 테마를 전체적으로 검색하면서 수록된 다양하고 방대한 내용은 한 번에 조망할 수 있는 백과사전으로서 재탄생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이 CD-ROM을 데이터베이스로 다양한 검색을 시행할 수 있었으며, 검색에 사용된 원본 데이터의 양으로만 보아도 이제까지의 어떤 보고에서 사용된 서적의 수보다 많은 서적을 확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중풍의 침치료에 관한 문헌논문 중 언어 장애를 주제로 한 문헌논문이 있었으나<sup>4)</sup>, 중풍후 운동장애를 주제로 하여 문헌적으로 연구한 논문은 없었다. 기존 논문에서는 중풍의 침구 치료를 전체적으로 다루거나 중풍 7혈에 대한 고찰을 하는 논문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중풍의 침치료에 대한 문헌연구를 할 때 몇 가지 고려해야할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로, 한의학 고전에서 다루는 중풍의 범주가 광범위하여 현대적 의미인 뇌혈관질환 이외에도 여러 가지 질환을 포괄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감별하는 문제가 있고, 둘째, 문헌상의 중풍 범주에는 전조증, 의

식장애, 언어장애, 구안와사, 운동장애 등 여러 병증이 혼합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문헌 연구에서 ‘중풍의 침치료’라는 큰 범주를 주제로 하기에는 여러 병증에 대한 내용이 혼재되는 어려움이 있어 본 논문에서는 운동 장애에 관한 내용에 연구 초점을 맞춰 분석을 시행하였다.

최<sup>1)</sup> 등은 각 중풍의 각 병증별로 방대한 검색을 시행하여 이 중 반신불수에서만 123혈이 사용되었다고 보고하였고, 인<sup>2)</sup> 등도 역시 병증별 분류 중 반신불수에서 68혈이 사용되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실제 원문을 통한 검색에 있어서는 어떤 문장을 중풍에 관련된 것으로 보고, 어떤 문장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판단이 자의적일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이 기준이 저자에 따라 약간씩 달라짐으로써 논문마다 개략적으로는 유사하면서도 실제 경혈 수와 인용 회수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자의적인 해석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검색어를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문장들을 추출하였으며, 이를 다시 Grade로 나누어 재분류함으로써, 검색을 통해 언급된 내용을 모두 포함하기보다는 제외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탈락시키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이로 인해 이전 보고들에 비하여 경혈 수와 인용 회수가 줄어들어 31개 경혈이 77회 인용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존 논문들에서 실제 사용된 문장을 직접 볼 수는 없으나 검색을 통해 문장을 제외시키는 과정을 통해 보면, 각종 통증과 연관되어 있거나 屈伸不利, 不仁 등 근골격계 질환과도 연관된 내용을 포함시키느냐 제외시키느냐가 분석 결과에서 차이를 가져온 것으로 보이며, ‘風府腰臑, 主足不仁.’와 같이 ‘不仁’이 단독 사용되었고 다른 단서가 없는 짧은 문장을 포함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도 하나의 요인으로 생각된다. 본 논문에서는 앞서 언급과 같이 단독 사용으로 의미를 부파한 몇몇 단어 이외 단어의 단독 사용은 감별 불능으로 판단하고 제외시켰다. 엄격하고 체계적인 분석에서도 내용의 누락이 있을 수 있겠지만, 본 논문에서는 자의적인 판단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이를 통해 문헌 조사 방법과 문헌 조사 연구의 객관성이 한층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중풍 후 운동 장애에 인용된 경혈에 대하여 경락별

로는 胃經과 膽經이 각각 7개 경혈에 18회, 13회 언급되었으며, 大腸經과 小腸經이 각각 3개의 경혈에 12회, 6회 언급되었다. 陽經이 전체 언급 경혈수의 70.96%, 언급 회수의 68.83%를 차지하여 경락학적으로 陽經이 다수인 비율 60.39%보다도 훨씬 높은 빈도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기존의 연구에서 안 등<sup>2)</sup>은 胃經, 膽經, 大腸經, 三焦經 순으로 보고하였으며, 최 등<sup>1)</sup>은 膀胱經, 膽經, 胃經, 三焦經, 大腸經 순으로 보고하여 본 연구결과와 다소의 차이점을 알 수 있다(Table 3).

가장 많이 사용된 것으로 조사된 상위 5개 경혈을 보면, 본 조사에서는 百會, 曲池, 肩髃, 足三里, 懸鍾로 나타났는데, 최 등<sup>1)</sup>은 曲池, 足三里, 合谷, 百會, 肩髃으로, 안 등<sup>2)</sup>은 陽陵泉, 環跳, 肩髃, 百會, 曲池, 足三里, 風市로 나타나 약간의 차이를 보였으나, 百會, 曲池, 肩髃, 足三里 이상 4개 경혈은 공통적으로 나타났다(Table 4). 모든 연구에서 陽經 소속혈의 우위는 공통

적으로 나타났다.

陽經이 우세한 결과에 대해서 최 등<sup>1)</sup>은 경락 유주 및 환부 자침 등으로 설명을 하였고, 안 등<sup>2)</sup>은 해당 경혈의 혈성 등으로 설명을 하였다. 중풍의 원인설이 다양하게 전해오고 있으나 그 치료에 있어서는 順氣가 우선이고, 따라서 氣病을 다스리는 陽經이 중시되어온 것으로 보이며, 둘째로 <鍼灸大成>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각 경락들의 유주를 보아도 陽經이 두면부에 많이 분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로 각 경혈이 언급된 문장은 해당 부위의 마비에 관련된 국소 취혈의 경우가 원위 취혈의 경우보다 우세하였으며, 원위 취혈의 경우는 灸法이 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움직임을 주관하는 경락으로서 陽經을 선택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중풍후 운동장애의 침구치료에 대한 醫部全錄의 문헌고찰을 통하여 다빈도 경혈은 百會,

Table 3. Top 5 meridians for hemiparesis of stroke in Euibujipsung

순위	본 연구	경혈 수	언급수	최 등 <sup>1)</sup>	경혈 수	언급수	안 등 <sup>2)</sup>	경혈 수
1	위경	7	18	방광경	21	51	위경	13
2	담경	7	13	담경	18	113	담경	12
3	대장경	3	12	위경	15	50	대장경	9
4	소장경	3	6	대장경	10	89	삼초경	8
5	기타 4개	2	-	삼초경	10	26	심포경	6

\* 안 등의 보고에는 경혈명 언급수 데이터 없어서 제외함.

Table 4. Top 5 acupoints for hemiparesis of stroke in Euibujipsung

순위	본 연구	언급 회수	최 등 <sup>1)</sup>	언급 회수	안 등 <sup>2)</sup>	언급 회수
1	백회	8	곡지	26	양릉천 환도 견우	8
2	곡지	6	족삼리	25	백회 곡지 족삼리 풍시	7
3	견우 족삼리 현종	5	합곡	22		
4			백회 견우	20		

曲池, 肩髃, 足三里, 懸鍾 등으로 분석되었고, 足少陽膽經, 足陽明胃經, 手陽明大腸經, 手太陽小腸經이 주로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중풍후 운동장애의 침치료에 대해 임상적으로 기여하는 바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향후 이와 관련된 각종 실험 또는 임상연구에 기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 문헌

1. 최용태, 강성길. 中風의 鍼灸治療에 關한 研究. 동서의학. 1978;3(4):1-15.
2. 안택원, 변일. 中風의 鍼灸治療에 對한 文獻的 考察. 혜화의학. 1993;1(2):37-54.
3. 박진웅, 고희균, 김창환. 中風의 鍼灸治療에 對한 小考. 대한침구학회지. 1996;13(1): 350-64.
4. 김재수, 이재동, 최도영, 박영배, 고희균, 안병철 외. 中風後 言語障礙에 對한 鍼灸治療의 文獻的 考察. 대한침구학회지. 1998;15(2):537-50.
5. 강승준, 박치상, 박창국. 中風七處穴에 對한 考察 - 中風의 概念變化에 따른 -. 경산대학교 제한동의학술원논문집. 1998;3(1):383-401.
6. 손인철, 안성훈. 中風七穴의 中風治療에 對한 文獻的 考察. 대한침구학회지. 1995;15(2):255-74.
7. 이원중, 채우석. 中風七穴에 對한 文獻的 考察. 대전대학교 한의학연구소 논문집. 1996;5(1):301-15.
8. 한국한의학연구원 편. DIGITAL 醫部集成 해설집·사용설명서. 한국한의학연구원. 2002:9-11, 19-22, 46-7.
9. 전국한외과대학심계내과학교실. 심계내과학. 서울: 군자출판사. 2006:331-42.